

이동하, 「저당 잡힌 사내」

[18~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전당포의 대머리 주인은 구인 광고를 보고 전당포에 찾아온 ‘그’에게, 쇠창살 칸막이 안쪽의 창고를 정리하도록 시킨다. ‘그’는 창고 안에서 일을 하던 중, 창고 문이 사라졌음을 알게 된다.

문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홀연히 사라진 것인가. 그 점이 분명치 않은 이상 어쩌면 저 벽들도 단지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갑자기 그를 충동질했다. 그는 벌떡 일어섰다. 육신의 매듭마다 뼈격이는 소리를 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고 벽에다 몸을 힘껏 부딪쳐 보았다. ㉠벽은, 그러나 단호한 힘으로 그를 밀어냈다. 무력하게 좌절당한 그는 차디찬 바닥에 나동그라진 채 멍해진 의식으로 되뇌었다. ㉡그것도 아니라면 나는 애초부터 이 조그만 공간 속에서 밀폐된 채 살아왔다는 얘기가……. 지금의 상황으로는 이 결론만이 가장 타당한 것처럼 여겨졌다. 따라서 자신의 온갖 기억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몇 가지 고통이 서서히 그의 육신을 저미기 시작했다. 첫째는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길 없는 괴로움이었다. 그 고통 때문에 윤패감은 한층 더 가중되었다. 백열등 불빛으로 충만해 있는 그 조그만 공간 속에서는 어디에도 시간의 흐름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온갖 잡동사니들 위에 쌓여 있는 먼지를 그는 보았다. 그것은 무위하게 죽어 떨어진 시간의 잔해 같은 것이었다. 이제 그것들 사이에 갇힌 한 사내의 생애도 먼지처럼 건조하게 부스러져 쌓일 것이라 믿어졌다. 그러자 문득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다. 정말 자신의 것이었던가조차도 실로 의심스러운 그 기억이.

갱 속에서 지냈던 지난 몇 년 간의 기억을 그는 조금씩 되살려 냈다. 흡사 오소리 굴같이 낮고 좁고 또 가파른 승강, 이마에 매단 희미한 램프만으로는 굴속 수천 미터의 암흑과 탄진을 밝히기란 아예 불가능한 노릇이었다. 외계와 단절된 채 모든 것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곳, 강판 위로 우수수 떨어져 내리는 석탄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지층에 켜켜이 쌓여 있던 그 죽은 시간의 잔해들을 캐냈던 것이다.

그곳에서도 시간은 정지되어 있었다. 그것의 흐름을 재볼 수 있는 것이라곤 오직, 자신의 노동의 양밖에 없었다. 문득 작업 종료의 신호가 울린다. 그리하여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면 하늘은 장기 근속자의 폐처럼 그렇게 음산했다. 그것이 새벽 어스름인지 저녁 땅거민지를 굳이 헤아릴 이유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출퇴근의 의미를

찾을 필요도 없었다. 뭉뚱그려서 말한다면 단지 그렇게 생활을 했을 뿐인 것이다. 자기 생애의 일부를 저당 잡힌 대가로.

그때를 생각하고 그는 일어섰다. 그러고는 정리하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 그것만이 최소한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며, **일의 진행**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소모되어 가는 자기 생애의 한 부분이 보이는 듯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지나간 생활의 도처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 시간과 생애에 대한 감각과 흡사하다고 생각되었다. 일에 대한 지겨움, 그 무의미성이 **발작적인 충동**을 일으키게 했지만, 그는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이번에도 잘 참아내고 있었다.

(중략)

그는 아직도 창고 안의 상태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㉔이래 가지고는 저 대머리 주인이 일당 천 원을 아까워하리라. 그는 가볍게 두어 번 혀를 차고 난 다음, 버려두었던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궁리를 해 가면서 전당물들을 차곡차곡 정리해 나갔다. 머리가 점차로 가뿐해졌다.

창고 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손을 털며 ㉕허리를 폈다. 그리고는 다소 흡족한 마음이 되어 한쪽 구석으로 가 웅크리고 앉았다.

“이만하면 주인 사내도 만족해 할 테지…….”

공복과 갈증이 새삼 느껴졌지만 그는 이대로 참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느긋한 마음으로 주위를 점검해 보았다. 사물들 사이에 주어진 질서가 그를 조금은 즐겁게 했다. 추위도 어지간히 견딜 만하다고 생각되었다. 적어도 동사를 면할 수는 있는 조건이었다.

시간의 흐름, 그거야 아무려면 어떠랴 싶었다. **10년 혹은 20년 이쪽저쪽**을 접어 보아도 그다지 다를 것 없는 자신의 생애였다. 어차피 **무의미한 노동의 시간들**이었다. 외로움 또한 새삼스러울 게 못 되었다. ㉖자신은 언제나 외로웠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외로우리라 짐작되었다. 그러므로 창고 속의 이 좁은 공간, **외계와는 철저히 단절된** 이 공간 역시 자신으로서의 그다지 타기해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라는 결론이 얻어졌다. 어쩌면 가장 **낮익고 분명한 생활 공간**이라 생각되었다. 그는 싸늘한 벽에다 등을 기대고 앉은 채 중얼댔다.

“자, 이제부터 또 무얼 한담?”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바로 맞은편 벽면에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만 소름이 오싹 끼침을 의식했다. 그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그곳을 쳐다보았다. 실로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그 희고 **건고한 벽**의 한 가운데에, 그가 그렇게도 불가사의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 문이 형체도 분명하게, 반쯤 열린 상태로 거기 있었다. 그는 벽을 의지하고 천천히 일어섰다. 오금이 저리고 무릎이 걸잡을 수 없이 떨렸다. ㉗뻗뻗하게 굳은 허리가 좀처럼 펴지질 않았다. 그는 미라처럼 어기적거리며 그 문으로 다가갔다.

맑고 신선한 공기가 그의 찌든 후각을 시원하게 자극해 왔다. 그것은 분명 열린 세계의 공기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조심스레 한 발짝 밖으로 내디뎠다. 형언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가슴을 팔랑개비처럼 휘저었다.

그는 보았다. 쇠창살의 칸막이 사이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대머리의 얼굴을……. **야릇한 전도감을** 의식하며 그는 멍한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쇠창살의 칸막이와 대머리 사내와 그리고 음울한 실내 풍경, 그것은 명백히 자신의 기억에 남아 있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 낯익은 공간의 어딘가가 지극히 **이물스럽고** 수상쩍게 느껴졌다.

“어떻게 오시었소?”

대머리 사내가 권태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뭘, 전당 잡힐 거라도?”

그러자 그는 문득, 자기가 빠져 있는 혼란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를 깨달았다. 그는 황망히 뒤를 돌아보았다. 낯선 문이 하나 거기 닫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문을 열어 보았다. 역시 창고가 아니었다. 어둡고 가파른 층계가 내려다보였을 따름이었다. **㉠그래, 나는 저 계단을 올라왔었지, 하고 그는 생각에 잠겼다.** 그것이 언제였던가? 꽤나 먼 기억으로 느껴졌다.

그는 다시 대머리 사내를 보았다. 분명히 자신의 기억에 남아 있으면서도 또 어딘가 **낯설어 보이는** 그런 얼굴이었다. 쇠창살의 칸막이 사이로 번들거리는 그 대머리는 그의 기억에 남아 있는 **무수한 대머리**를 한동안 연상시킨 끝에 결국은 짙은 혐오감만을 남겨 놓았다.

- 이동하, 「저당 잡힌 사내」-

(현대 소설) 이동하, 「저당 잡힌 사내」

이 작품은 출입문을 매개로 서사 구조가 순환되는 비현실성 요소를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노동에 저당 잡힌 채 끝없는 노동의 반복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전당포에 취직한 ‘그’는 창고 정리 일을 하던 중, 문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당혹감과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반복된 노동으로 자신의 생애를 유지했던 지난날을 환기하며, 점차 자신의 상황에 적응한다. 갑자기 다시 문이 나타나 ‘그’는 창고 밖으로 나가지만, 문을 통과하는 순간 처음 ‘그’가 전당포로 들어왔던 상황이 재연된다. ‘그’는 전당포 취직부터 문이 사라져 창고 안에 갇히는 과정을 또 경험하고, 창고 안에 다시 갇혔을 때 자신의 생애 중 가장 큰 안정감을 느낀다.

1. ㉠~㉢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

- ① ㉠ : 인물이 마주하는 대상을 주제로 서술함으로써 대상이 지닌 속성을 부각한다.
- ② ㉡ : 인용 부호의 사용 없이 인물의 생각을 인물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낸다.
- ③ ㉢ : 초점화된 인물의 관점에서 다른 인물이 보일 반응을 예측하여 제시한다.
- ④ ㉣ : 서술자가 인물의 현재 심리 상태와 앞으로 인물이 처하게 될 상황을 추측하여 서술한다.
- ⑤ ㉤ : 인물에 대한 서술 속에 해당 인물의 목소리가 포함되면서 인물과 서술자의 목소리가 모두 드러난다.

2.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²⁾

- ① ‘그’가 창고 안에서 ‘시간의 흐름’을 찾아낼 수 없었던 것은, 갯 속에서의 생활을 떠올리는 것으로 이어진다.
- ② ‘그’가 지상에서 ‘새벽’과 ‘저녁’을 헤아리지 않았던 것은, 갯 속과 마찬가지로 ‘노동의 양’을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③ ‘그’가 창고라는 ‘조그만 공간’에서 ‘유편감’을 느끼는 것은, ‘낮고 좁은 ‘오소리 굴’ 같은 갯 속에서의 생활에 대응된다.
- ④ ‘그’가 ‘먼지’와 ‘석탄’을 죽은 ‘시간의 잔해’로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은, 창고 안과 갯 속의 공통적인 속성에서 비롯된다.
- ⑤ ‘그’가 지상의 하늘을 ‘장기 근육자의 폐처럼’ 음산하다고 인식한 것은, ‘암흑’으로 가득한 갯 속에서의 경험과 연관된다.

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³⁾

- ① ㉠과 ㉡는 모두, 인물이 품었던 의구심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응이다.
- ② ㉠과 ㉡는 모두, 인물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음을 보여 주는 반응이다.
- ③ ㉠은 인물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였음을 보여 주는, ㉡는 인물의 좌절감을 드러낸 반응이다.
- ④ ㉠은 인물 간 갈등이 해소된 결과로, ㉡는 해소된 인물 간 갈등이 다시 야기됨으로써 나타나는 반응이다.
- ⑤ ㉠은 인물에게 주어진 요구를 일정 부분 충족한 결과로, ㉡는 인물이 예상 못 한 사건의 발생에 대해 나타난 반응이다.

4. <보기>를 바탕으로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⁴⁾ [3점]

<보기>

「저당 잡힌 사내」에서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모호한 비현실성은, 입구이자 출구인 ‘문’의 양면성을 매개로 하여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서사 구조에 의해 구현된다. 이러한 서사 구조에 맞물려 반복되는 노동의 굴레에 갇힌 주인공은 이에 순응하게 되어 노동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이를 통해 작품의 제목이 끝없는 노동에 자신의 삶을 저당 잡힌 현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① ‘그’가 자신의 삶을 ‘일의 진행’에 따라 ‘소모’된다고 인식하면서 보인 ‘발작적인 충동’은, 폐쇄적 굴레에 순응하려는 현대인의 정체성이 표출된 것이군.
- ② ‘10년 혹은 20년 이쪽저쪽’을 살펴보며 ‘그’가 자신의 생애를 ‘무의미한 노동의 시간들’로 규정하는 것은, 끝없는 노동의 굴레에 삶을 저당 잡힌 채 살아왔음을 자각한 것이군.
- ③ ‘그’가 ‘건고한 벽’으로 둘러싸여 ‘외계와는 철저히 단절된’ 공간을 ‘낮익고 분명한 생활 공간’이라 여기는 것은, 노동의 수단으로 전락한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군.
- ④ ‘그’가 ‘문’을 열고 나와 ‘주위를 둘러보’며 의식한 ‘야릇한 전도감’은, 창고 밖으로 향하는 출구인 동시에 다시 전당포의 입구가 되는 ‘문’의 양면성에서 비롯된 것이군.
- ⑤ ‘그’가 ‘이물스럽’게 여겨지는 공간에서 낮익음을 느끼고 ‘낯설어 보이는’ 얼굴에서 ‘기억에 남아 있는 무수한 대머리’를 연상하는 것은, 반복적인 서사 구조에 의해 구현되는 비현실성을 드러내는 것이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전당포의 대머리 주인은 구인 광고를 보고 전당포에 찾아온 ‘그’에게, 쇠창살 칸막이 안쪽의 창고를 정리하도록 시킨다. ‘그’는 창고 안에서 일을 하던 중, 창고 문이 사라졌음을 알게 된다.

㉠문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홀연히 사라진 것인가. 그 점이 분명치 않은 이상 어쩌면 저 벽들도 단지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갑자기 그를 충동질했다. 그는 벌떡 일어섰다. 육신의 매듭마다 빠걱이는 소리를 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고 벽에다 몸을 힘껏 부딪쳐 보았다. ㉡벽은, 그러나 단호한 힘으로 그를 밀어냈다. 무력하게 좌절당한 그는 차디찬 바닥에 나동그라진 채 멍해진 의식으로 되뇌었다. 그것도 아니라면 나는 애초부터 이 조그만 공간 속에서 밀폐된 채 살아왔다는 애긴가……. 지금의 상황으로는 이 결론만이 가장 타당한 것처럼 여겨졌다. 따라서 자신의 온갖 기억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몇 가지 고통이 서서히 그의 육신을 저미기 시작했다. 첫째는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길 없는 괴로움이었다. 그 고통 때문에 유폐감은 한층 더 가중되었다. 백열등 불빛으로 충만해 있는 그 조그만 공간 속에서는 어디에도 시간의 흐름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온갖 잡동사니들 위에 쌓여 있는 먼지를 그는 보았다. ㉢그것은 무위하게 죽어 떨어진 시간의 잔해 같은 것이었다. 이제 그것들 사이에 갇힌 한 사내의 생애도 먼지처럼 건조하게 부스러져 쌓일 것이라 믿어졌다. 그러자 문득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다. 정말 자신의 것이었던가조차도 실로 의심스러운 그 기억이.

[A]

갱 속에서 지냈던 지난 몇 년 간의 기억을 그는 조금씩 되살려 냈다. 흡사 오소리 굴같이 낮고 좁고 또 가파른 승강, 이마에 매단 희미한 램프만으로는 굴속 수천 미터의 암흑과 탄진을 밝히기란 아예 불가능한 노릇이었다. 외계와 단절된 채 모든 것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곳, 강판 위로 우수수 떨어져 내리는 석탄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지층에 켜켜이 쌓여 있던 그 죽은 시간의 잔해들을 캐냈던 것이다.

그곳에서도 시간은 정지되어 있었다. 그것의 흐름을 재볼 수 있는 것이라곤 오직, 자신의 노동의 양밖에 없었다. 문득 작업 종료의 신호가 울린다. 그리하여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면 하늘은 장기 근속자의 패처럼 그렇게 음산했다. 그것이 새벽 어스름인지 저녁 땅거민지를 굳이 헤아릴 이유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출퇴근의 의미를 찾을 필요도 없었다. 뭉뚱그려서 말한다면 단지 그렇게 생활을 했을 뿐인 것이다. 자기 생애의 일부를 저장—잡힌 대가로.

그때를 생각하고 그는 일어섰다. 그러고는 정리하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 그것만이 최소한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며, 일의 진행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소모되어 가는 자기 생애의 한 부분이 보이는 듯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지나간 생활의 도처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 시간과 생애에 대한 감각과 흡사하다고 생각되었다. 일에 대한 지겨움, 그 무의미성이 발작적인 충동을 일으키게 했지만, 그는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이번에도 잘 참아내고 있었다.

(중략)

그는 아직도 창고 안의 상태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이래 가지고는 저 대머리 주인이 일당 천 원을 아까워하리라. 그는 가볍게 두어 번 혀를 차고 난 다음, 버려두었던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궁리를 해 가면서 전당물들을 차곡차곡 정리해 나갔다. 머리가 점차로 가뽏해졌다.

창고 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손을 털며 ㉤허리를 폈다. 그리고는 다소 흡족한 마음이 되어 한쪽 구석으로 가 웅크리고 앉았다.

“이만하면 주인 사내도 만족해 할 테지…….”

공복과 갈증이 새삼 느껴졌지만 그는 이대로 참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느긋한 마음으로 주위를 점검해 보았다. 사물들 사이에 주어진 질서가 그를 조금은 즐겁게 했다. 추위도 어지간히 견딜 만하다고 생각되었다. 적어도 동사를 면할 수는 있는 조건이었다.

시간의 흐름, 그거야 아무려면 어떠랴 싶었다. 10년 혹은 20년 이쪽저쪽을 접어 보아도 그다지 다를 것 없는 자신의 생애였다. 어차피 무의미한 노동의 시간들이었다. 외로움 또한 새삼스러울 게 못 되었다. 자신은 언제나 외로웠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외로우리라 짐작되었다. 그러므로 창고 속의 이 좁은 공간, 외계와는 철저히 단절된 이 공간 역시 자신으로서의 그다지 타기해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라는 결론이 얻어졌다. 어쩌면 가장 낮익고 분명한

생활 공간이라 생각되었다. 그는 싸늘한 벽에다 등을 기대고 앉은 채 중얼댔다.

“자, 이제부터 또 무얼 한담?”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바로 맞은편 벽면에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만 소름이 오싹 끼침을 의식했다. 그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그곳을 쳐다보았다. 실로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그 희고 견고한 벽의 한가운데에, 그가 그렇게도 불가사의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 문이 형체도 분명하게, 반쯤 열린 상태로 거기 있었다. 그는 벽을 의지하고 천천히 일어섰다. 오금이 저리고 무릎이 견잡을 수 없이 떨렸다. ㉞뻗뻗하게 굳은 허리가 좀처럼 펴지질 않았다. 그는 미라처럼 어기적거리며 그 문으로 다가갔다.

맴고 신선한 공기가 그의 찌든 후각을 시원하게 자극해 왔다. 그것은 분명 열린 세계의 공기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조심스레 한 발짝 밖으로 내디뎠다. 형언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가슴을 팔랑개비처럼 휘저었다.

그는 보았다. 쇠창살의 칸막이 사이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대머리의 얼굴을……. 야릇한 전도감을 의식하며 그는 멍한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쇠창살의 칸막이와 대머리 사내와 그리고 음울한 실내 풍경, 그것은 명백히 자신의 기억에 남아 있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 낯익은 공간의 어딘가가 지극히 이물스럽고 수상쩍게 느껴졌다.

“어떻게 오시었소?”

대머리 사내가 권태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뭐, 전당 잡힐 거라도?”

그러자 그는 문득, 자기가 빠져 있는 혼란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를 깨달았다. 그는 황망히 뒤를 돌아보았다. 낯선 문이 하나 거기 닫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문을 열어 보았다. 역시 창고가 아니었다. 어둡고 가파른 층계가 내려다보였을 따름이었다. ㉟그래, 나는 저 계단을 올라왔었지, 하고 그는 생각에 잠겼다. 그것이 언제였던가? 꽤나 먼 기억으로 느껴졌다.

그는 다시 대머리 사내를 보았다. 분명히 자신의 기억에 남아 있으면서도 또 어딘가 낯설어 보이는 그런 얼굴이었다. 쇠창살의 칸막이 사이로 번들거리는 그 대머리는 그의 기억에 남아 있는 무수한 대머리를 한동안 연상시킨 끝에 결국은 짙은 혐오감만을 남겨 놓았다.

- 이동하, 「저당 잡힌 사내」

5. ㉞~㉟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㉞: 의문형 문장을 통해 그의 혼란스러운 내면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㉟: 사물을 주체로 설정하여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③ ㉞: 직유를 통해 추상적인 개념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④ ㉟: 인물의 말을 통해 다른 인물에 대한 원망을 표현하고 있다.
- ⑤ ㉞: 서술 속에 인물과 서술자의 목소리가 모두 드러난다.

6. ㄱ [A]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길 없는 괴로움’은 ‘유패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 ② ‘그’가 새벽과 저녁, 출퇴근의 의미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개인의 주체적인 시간과 삶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한다.
- ③ ‘흡사 오소리 굴같이 낮고 좁고 또 가파른 승강’은 창고의 ‘유패감’과 유사한 느낌을 준다.
- ④ ‘그’가 시간의 흐름을 ‘노동의 양’으로만 재볼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은 노동에 매몰된 삶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 ⑤ ‘하늘은 장기 근속자의 폐처럼 그렇게 음산했다’라는 것은 그가 갯 속에서만 일을 했기에 실제 하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7.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는 모두, 자신을 가두고 있는 벽에 대한 인물의 좌절감과 절망감을 드러내는 반응이다.
- ② ㉮는 인물의 건강하고 활기찼던 때의 신체 상황을, ㉯는 인물이 노동에 지쳐 노쇠해진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는 인물의 성공에 대한 기쁨을, ㉯는 인물의 실패에 대한 좌절을 나타내는 반응이다.
- ④ ㉮는 인물의 내적 갈등이 해소된 결과를, ㉯는 인물의 내적 갈등이 심화된 결과를 드러내는 반응이다.
- ⑤ ㉮는 인물이 주어진 일을 어느 정도 처리한 결과에 대해, ㉯는 인물이 예상 못 한 사건의 발생에 대해 나타난 반응이다.

8. ㉸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저당 잡힌 사내」에서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모호한 비현실성은, 입구이자 출구인 ‘문’의 양면성을 매개로 하여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서사 구조에 의해 구현된다. 이러한 서사 구조에 맞물려 반복되는 노동의 굴레에 갇힌 주인공은 이에 순응하게 되어 노동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이를 통해 작품의 제목이 끝없는 노동에 자신의 삶을 저당 잡힌 현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① ‘그’가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의 기억이었던가조차도 실로 의심스럽다’고 한 것은 반복되는 노동 속에서 자아가 희미해지는 현대인의 모습을 암시하는군.
- ② ‘그’가 갯 속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곳에서도 시간은 정지되어 있었다’고 한 것은, 그곳이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없는, 오직 노동만이 존재하는 공간이었음을 나타내는군.
- ③ ‘그’가 ‘시간의 흐름, 그거야 아무려면 어떠랴 싶었다’고 한 것은 그의 삶이 반복적이고 의미 없는 노동으로 점철되어 와 시간의 흐름에 대해 무감각해졌음을 보여 주는군.
- ④ 창고 밖으로 향하는 출구인 동시에 다시 전당포의 입구가 되는 ‘문’의 양면성은 ‘그’가 반복되는 노동의 굴레에 갇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군.
- ⑤ ‘그’가 ‘이물스럽’게 여겨지는 공간에서 낯익음을 느끼고 ‘낯설어 보이는’ 얼굴에서 ‘기억에 남아 있는 무수한 대머리’를 연상하는 것은, 노동의 반복을 깨달은 ‘그’가 순환을 깨뜨리고 굴레에서 벗어날 것임을 암시하는군.

9. ㉹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 내의 또 다른 인물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며 인물의 성장을 입체적으로 보여 준다.
- ③ 특정 인물의 시각으로 제한하여 그의 내면 심리를 집중적으로 드러낸다.
- ④ 등장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며 극적인 효과를 높인다.
- 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건을 제시하며 앞으로 이어질 사건을 암시한다.

10. ㉺ 윗글과 <보기>에서 나타나는 ‘시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sap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 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sap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샛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sap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 정희성, 「저문 강에 sap을 씻고」

- ① 윗글의 ‘그’는 갇힌 공간에서 벗어나 과거를 회상하며 주체적인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려 하지만 좌절하고, <보기>의 화자는 노동 후 강물에 sap을 씻으며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삶의 유한함을 깨닫는다.
- ② 윗글의 ‘그’는 반복되는 노동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없다고 느끼며 무력감을 느끼고, <보기>의 화자는 노동이 끝난 저녁 강가에서 스스로 깊어 가는 강물을 보며 시간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 ③ 윗글의 ‘그’는 창고에서의 현재와 갯 속에서의 과거를 오가며 시간의 연속성을 인식하지만, <보기>의 화자는 노동으로 인해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을 인식하며 늪어감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④ 윗글의 ‘그’와 <보기>의 화자 모두 노동이라는 반복적인 행위 속에서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갇혀 있다고 느낀다.
- ⑤ 윗글의 ‘그’는 갇힌 공간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간을 초월한 다른 세계를 꿈꾸지만 결국 현실로 돌아오고, <보기>의 화자는 고된 노동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시간을 견디며 살아간다.

11. 11) 윗글에서 ‘그’가 창고 안의 먼지와 갯 속의 석탄을 모두 ‘죽은 시간의 잔해’로 인식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물질적인 형태로 남아 있는 과거의 흔적이기 때문에
- ②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없는 공간 속에서 무의미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 ③ 이미 죽은 이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 ④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딛고 나아가야 할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 ⑤ ‘그’가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 때문에

12. 12) 밑줄에 나타난 비유적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기 근속자의 폐처럼 그렇게 음산했다’는 하늘의 이미지는 고된 노동으로 지친 ‘그’의 내면을 드러낸다.
- ② ‘오소리 굴같이 낮고 좁고 또 가파른 승갱’은 열악한 노동 환경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유폐감을 강조한다.
- ③ ‘한 사내의 생애도 먼지처럼 건조하게 부스러져 쌓일 것이라 믿어졌다’는 표현은 무의미하게 소멸될 ‘그’의 미래를 암시한다.
- ④ ‘육신의 매듭마다 빼격이는 소리를 냈다’는 표현은 ‘그’의 활기차고 건강한 육체를 감각적으로 드러낸다.
- ⑤ ‘가슴을 팔랑개비처럼 휘저었다’는 표현은 문밖의 상황에 대한 ‘그’의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심리를 나타낸다.

13. 13) 밑줄의 ‘그’가 마지막에 대머리 주인에게 ‘짙은 혐오감’을 느낀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노동을 착취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 ②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력감을 느꼈기 때문에
- ③ 낮익으면서도 낯선 그의 모습에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 ④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 ⑤ 인간적인 교류 없이 권태로운 태도를 보이는 그의 모습에 실망했기 때문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전당포의 대머리 주인은 구인 광고를 보고 전당포에 찾아온 ‘그’에게, 쇠창살 칸막이 안쪽의 창고를 정리하도록 시킨다. ‘그’는 창고 안에서 일을 하던 중, 창고 문이 사라졌음을 알게 된다.

문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홀연히 사라진 것인가. 그 점이 분명치 않은 이상 어쩌면 저 벽들도 단지 환상이지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갑자기 그를 충동질했다. 그는 벌떡 일어섰다. 육신의 매듭마다 빼격이는 소리를 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고 벽에다 몸을 힘껏 부딪쳐 보았다. 벽은, 그러나 단호한 힘으로 그를 밀어냈다. 무력하게 좌절당한 그는 차디찬 바닥에 나동그라진 채 멍해진 의식으로 되뇌었다. 그것도 아니라면 나는 애초부터 이 조그만 공간 속에서 밀폐된 채 살아왔다는 애기가……. 지금의 상황으로는 이 결론만이 가장 타당한 것처럼 여겨졌다. 따라서 자신의 온갖 기억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몇 가지 고통이 서서히 그의 육신을 저미기 시작했다. 첫째는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길 없는 괴로움이었다. 그 고통 때문에 유폐감은 한층 더 가중되었다. 백열등 불빛으로 충만해 있는 그 조그만 공간 속에서는 어디에도 시간의 흐름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온갖 잡동사니들 위에 쌓여 있는 먼지를 그는 보았다. 그것은 무위하게 죽어 떨어진 시간의 잔해 같은 것이었다. 이제 그것들 사이에 갇힌 한 사내의 생애도 먼지처럼 건조하게 부스러져 쌓일 것이라 믿어졌다. 그러자 문득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다. 정말 자신의 것이었던가조차도 실로 의심스러운 그 기억이.

갱 속에서 지냈던 지난 몇 년 간의 기억을 그는 조금씩 되살려 냈다. 흡사 오소리 굴같이 낮고 좁고 또 가파른 승갱. 이마에 매단 희미한 램프만으로는 굴속 수천 미터의 암흑과 탄진을 밝히기란 아예 불가능한 노릇이었다. 외계와 단절된 채 모든 것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곳, 강판 위로 우수수 떨어져 내리는 석탄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지층에 켜켜이 쌓여 있던 그 죽은 시간의 잔해들을 캐냈던 것이다.

그곳에서도 시간은 정지되어 있었다. 그것의 흐름을 재볼 수 있는 것이라곤 오직, 자신의 노동의 양밖에 없었다. 문득 작업 종료의 신호가 울린다. 그리하여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면 하늘은 장기 근속자의 폐처럼 그렇게 음산했다. 그것이 새벽 어스름인지 저녁 땅거민지를 굳이 헤아릴 이유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출퇴근의 의미를 찾을 필요

도 없었다. 뭉뚱그려서 말한다면 단지 그렇게 생활을 했을 뿐인 것이다. 자기 생애의 일부를 저당 잡힌 대가로.

그때를 생각하고 그는 일어섰다. 그리고는 정리하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 그것만이 최소한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며, 일의 진행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소모되어 가는 자기 생애의 한 부분이 보이는 듯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지나간 생활의 도처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 시간과 생애에 대한 감각과 흡사하다고 생각되었다. 일에 대한 지겨움, 그 무의미성이 발작적인 충동을 일으키게 했지만, 그는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이번에도 잘 참아 내고 있었다.

(중략)

그는 아직도 창고 안의 상태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이래 가지고는 저 대머리 주인이 일당 천 원을 아까워하리라. 그는 가볍게 두어 번 혀를 차고 난 다음, 버려두었던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공리를 해 가면서 전당물들을 차곡차곡 정리해 나갔다. 머리가 점차로 가뻔해졌다.

창고 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손을 털며 허리를 폈다. 그리고는 다소 흡족한 마음이 되어 한쪽 구석으로 가 웅크리고 앉았다.

“이만하면 주인 사내도 만족해 할 테지…….”

공복과 갈증이 새삼 느껴졌지만 그는 이대로 참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느긋한 마음으로 주위를 점검해 보았다. 사물들 사이에 주어진 질서가 그를 조금은 즐겁게 했다. 추위도 어지간히 견딜 만하다고 생각되었다. 적어도 동사를 면할 수는 있는 조건이었다.

시간의 흐름, 그거야 아무려면 어떠랴 싶었다. 10년 혹은 20년 이쪽저쪽을 접어 보아도 그다지 다를 것 없는 자신의 생애였다. 어차피 무의미한 노동의 시간들이었다. 외로움 또한 새삼스러울 게 못 되었다. 자신은 언제나 외로웠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외로우리라 짐작되었다. 그러므로 창고 속의 이 좁은 공간, 외계와는 철저히 단절된 이 공간 역시 자신으로서의 그다지 타기해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라는 결론이 얻어졌다. 어쩌면 가장 낮익고 분명한 생활 공간이라 생각되었다. 그는 싸늘한 벽에다 등을 기대고 앉은 채 중얼댔다.

“자, 이제부턴 또 무얼 한담?”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바로 맞은편 벽면에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만 소름이 오싹 끼침을 의식했다. 그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그곳을 쳐다보았다. 실로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그 희고 견고한 벽의 한가운데에, 그가 그렇게도 불가사의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 문이 형체도 분명하게, 반쯤 열린 상태로 거기 있었다. 그는 벽을 의지하고 천천히 일어섰다. 오금이 저리고 무릎이 걸잡을 수 없이 떨렸다. 뻣뻣하게 굳은 허리가 좀처럼 펴지질 않았다. 그는 미라처럼 어기적거리며 그 문으로 다가갔다.

맑고 신선한 공기가 그의 찌든 후각을 시원하게 자극해 왔다. 그것은 분명 열린 세계의 공기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조심스레 한 발짝 밖으로 내디뎠다. 형언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가슴을 팔랑개비처럼 휘저었다.

그는 보았다. 쇠창살의 칸막이 사이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대머리의 얼굴을……。 야릇한 전도감을 의식하며 그는 멍한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쇠창살의 칸막이와 대머리 사내와 그리고 음울한 실내 풍경, 그것은 명백히 자신의 기억에 남아 있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 낮익은 공간의 어딘가가 지극히 이물스럽고 수상쩍게 느껴졌다.

“어떻게 오시었소?”

대머리 사내가 권태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뭘, 전당 잡힐 거라도?”

그러자 그는 문득, 자기가 빠져 있는 혼란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를 깨달았다. 그는 황망히 뒤를 돌아보았다. 낮은 문이 하나 거기 닫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문을 열어 보았다. 역시 창고가 아니었다. 어둡고 가파른 층계가 내려다보였을 따름이었다. 그래, 나는 저 계단을 올라왔었지, 하고 그는 생각에 잠겼다. 그것이 언제였던가? 꽤나 먼 기억으로 느껴졌다.

그는 다시 대머리 사내를 보았다. 분명히 자신의 기억에 남아 있으면서도 또 어딘가 낯설어 보이는 그런 얼굴이었다. 쇠창살의 칸막이 사이로 번들거리는 그 대머리는 그의 기억에 남아 있는 무수한 대머리를 한동안 연상시킨 끝에 결국은 짙은 혐오감만을 남겨 놓았다.

- 이동하, 「저당 잡힌 사내」

14. 14) 윗글의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은?

- ① 문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홀연히 사라진 것인가.
- ② 그것도 아니라면 나는 애초부터 이 조그만 공간 속에서 밀폐된 채 살아왔다는 얘긴가…….
- ③ 자기 생애의 일부를 저당 잡힌 대가로.
- ④ 시간의 흐름, 그거야 아무려면 어떠랴 싶었다.
- ⑤ 어쩌면 가장 낮익고 분명한 생활 공간이라 생각되었다.

15. 15) 윗글과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난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거운 소주를 붓는다.
아,
이러다간 오래 못가지
이러다간 끝내 못가지.

설은 세 그릇 짬밥으로
기름투성이 체력전을
전력을 다 짜내어 바둥치는
이 전쟁 같은 노동일을
오래 못가도
끝내 못가도
어쩔 수 없지.

탈출할 수만 있다면,
진이 빠져, 허깨비 같은
스물아홉의 내 운명을 날아 빠질 수만 있다면
아, 그러나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죽음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
이 질긴 목숨을,
가난의 멍에를,
이 운명을 어쩔 수 없지.

늘어쳐진 육신에
또다시 다가올 내일의 노동을 위하여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거운 소주를 붓는다.
소주보다 독한 깡다구를 오기를

분노와 슬픔을 뱉는다.

어쩔 수 없는 이 절망의 벽을
기어코 깨뜨려 솟구칠
거치른 땀방울, 피눈물 속에
새근새근 숨쉬며 자라는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분노
우리들의 희망과 단결을 위해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거운 소죽잔을
돌리며 돌리며 뱉는다.
노동자의 햇새벽이
솟아오를 때까지.

- 박노해, 「노동의 새벽」

- ① 두 작품 모두 화려한 언어와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노동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 ② 윗글의 ‘그’는 노동의 무의미함 속에서 체념하는 반면, <보기>의 화자는 고된 노동 속에서도 노동 해방이라는 미래의 희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
- ③ 두 작품 모두 주인공이 현실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공을 거두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 ④ 윗글의 ‘그’는 과거의 행복했던 기억을 통해 현재의 고통을 견디는 반면, <보기>의 화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괴로워한다.
- ⑤ 두 작품 모두 노동으로 인해 겪는 육체적 고통보다는 정신적 풍요로움을 강조하며 삶의 긍정적인 가치를 드러낸다.

16. 16)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라진 문이라는 비현실적인 설정이 흥미롭게 느껴진다.
- ② 반복되는 ‘그’의 상황을 통해 노동에 종속된 현대인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된다.
- ③ 좁은 창고를 가장 익숙한 공간으로 느끼는 ‘그’의 모습이 안타깝다.
- ④ 과거 갭 속에서의 노동 경험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그’의 의지가 돋보인다.
- ⑤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고 노동에 매몰된 ‘그’의 모습에서 씁쓸함을 느낀다.

17. 17) 윗글에서 ‘문’이 갖는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긍정적인 존재
- ② 외부 세계와 단절된 ‘그’의 고립감을 심화시키는 장치
- ③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모호한 비현실성을 드러내어 반복되는 노동의 굴레를 보여 주는 장치
- ④ ‘그’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시간 이동의 통로

- ⑤ 전당포 주인과 ‘그’의 권력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요소

18. 18) 윗글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활기찬 도시의 역동적인 풍경을 묘사한 글
- ②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느끼는 평화로운 감정을 표현한 글
- ③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절망감을 담은 글
- ④ 과거의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느끼는 따뜻하고 그리운 감정을 표현한 글
- ⑤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긍정적인 의지를 드러내는 글

19. 19) 윗글에서 ‘그’가 인식하는 현실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희망적인 공간
- ②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역동적인 공간
- ③ 과거의 경험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간
- ④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반복적인 노동만이 존재하는 억압적인 공간
- ⑤ 타인과의 소통과 연대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공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전당포의 대머리 주인은 구인 광고를 보고 전당포에 찾아온 ‘그’에게, 쇠창살 칸막이 안쪽의 창고를 정리하도록 시킨다. ‘그’는 창고 안에서 일을 하던 중, 창고 문이 사라졌음을 알게 된다.

문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홀연히 사라진 것인가. 그 점이 분명치 않은 이상 어쩌면 저 벽들도 단지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갑자기 그를 충동질했다. 그는 벌떡 일어섰다. 육신의 매듭마다 삐걱이는 소리를 냈다. 그러나 그는 개입치 않고 벽에다 몸을 힘껏 부딪쳐 보았다. 벽은, 그러나 단호한 힘으로 그를 밀어냈다. 무력하게 좌절당한 그는 차디찬 바닥에 나동그라진 채 멍해진 의식으로 되뇌었다. 그것도 아니라면 나는 애초부터 이 조그만 공간 속에서 밀폐된 채 살아왔다는 애기가……. 지금의 상황으로는 이 결론만이 가장 타당한 것처럼 여겨졌다. 따라서 자신의 온갖 기억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몇 가지 고통이 서서히 그의 육신을 저미기 시작했다. 첫째는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길 없는 괴로움이었다. 그 고통 때문에 유쾌감은 한층 더 가중되었다. 백열등 불빛으로 총만해 있는 ㉔그 조그만 공간 속에서는 어디에도 시간의 흐름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온갖 잡동사니들 위에 쌓여 있는 먼지를 그는 보았다. 그것은 무위하게 죽어 떨어진 시간의 잔해 같은 것이었다. 이제 그것들 사이에 갇힌 한 사내의 생애도 먼지처럼 건조하게 부스러져 쌓일 것이라 믿어졌다. 그러자 문득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다. 정말 자신의 것이었던가조차도 실로 의심스러운 그 기억이.

㉕갭 속에서 지냈던 지난 몇 년 간의 기억을 그는 조금씩 되살려 냈다. 흡사 오소리 굴같이 낮고 좁고 또 가파른 승강, 이마에 매단 희미한 램프만으로는 굴속 수천 미터의 암흑과 탄진을 밝히기란 아예 불가능한 노릇이었다. 외계와 단절된 채 모든 것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곳, 강판 위로 우수수 떨어져 내리는 석탄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지층에 켜켜이 쌓여 있던 그 죽은 시간의 잔해들을 캐냈던 것이다.

그곳에서도 시간은 정지되어 있었다. 그것의 흐름을 재볼 수 있는 것이라곤 오직, 자신의 노동의 양밖에 없었다. 문득 작업 종료의 신호가 울린다. 그리하여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면 하늘은 장기 근속자의 패처럼 그렇게 음산했다. 그것이 새벽 어스름인지 저녁 땅거민지를 굳이 헤아릴 이유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출퇴근의 의미를 찾을 필요

도 없었다. 뭉뚱그려서 말한다면 단지 그렇게 생활을 했을 뿐인 것이다. 자기 생애의 일부를 저당 잡힌 대가로.

그때를 생각하고 그는 일어섰다. 그러고는 정리하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 그것만이 최소한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며, 일의 진행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소모되어 가는 자기 생애의 한 부분이 보이는 듯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지나간 생활의 도처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 시간과 생애에 대한 감각과 흡사하다고 생각되었다. 일에 대한 지겨움, 그 무의미성이 발작적인 충동을 일으키게 했지만, 그는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이번에도 잘 참아 내고 있었다.

(중략)

그는 아직도 창고 안의 상태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이래 가지고는 저 대머리 주인이 일당 천 원을 아까워하리라. 그는 가볍게 두어 번 허를 차고 난 다음, 버려두었던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공리를 해 가면서 전당물들을 차곡차곡 정리해 나갔다. 머리가 점차로 가뽏해졌다.

창고 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손을 털며 허리를 폈다. 그리고는 다소 흡족한 마음이 되어 한쪽 구석으로 가 웅크리고 앉았다.

“이만하면 주인 사내도 만족해 할 테지…….”

공복과 갈증이 새삼 느껴졌지만 그는 이대로 참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느긋한 마음으로 주위를 점검해 보았다. 사물들 사이에 주어진 질서가 그를 조금은 즐겁게 했다. 추위도 어지간히 견딜 만하다고 생각되었다. 적어도 동사를 면할 수는 있는 조건이었다.

시간의 흐름, 그거야 아무려면 어떠랴 싶었다. 10년 혹은 20년 이쪽저쪽을 접어 보아도 그다지 다를 것 없는 자신의 생애였다. 어차피 무의미한 노동의 시간들이었다. 외로움 또한 새삼스러울 게 못 되었다. 자신은 언제나 외로웠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외로우리라 짐작되었다. 그러므로 창고 속의 이 좁은 공간, 외계와는 철저히 단절된 이 공간 역시 자신으로서는 그다지 타기해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라는 결론이 얻어졌다. 어쩌면 가장 낮익고 분명한 생활 공간이라 생각되었다. 그는 싸늘한 벽에다 등을 기대고 앉은 채 중얼댔다.

“자, 이제부터 또 무얼 한담?”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바로 맞은편 벽면에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만 소름이 오싹 끼침을 의식했다. 그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그곳을 쳐다보았다. 실로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그 희고 견고한 벽의 한가운데에, 그가 그렇게도 불가사의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 문이 형체도 분명하게, 반쯤 열린 상태로 거기 있었다. 그는 벽을 의지하고 천천히 일어섰다. 오금이 저리고 무릎이 걸잡을 수 없이 떨렸다. 뻣뻣하게 굳은 허리가 좀처럼 펴지질 않았다. ㉠그는 미라처럼 어기적거리며 그 문으로 다가갔다.

맑고 신선한 공기가 그의 찌든 후각을 시원하게 자극해 왔다. 그것은 분명 열린 세계의 공기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조심스레 한 발짝 밖으로 내디뎠다. 형언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가슴을 팔랑개비처럼 휘저었다.

그는 보았다. 쇠창살의 칸막이 사이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대머리의 얼굴을……。 야릇한 전도감을 의식하며 그는 멍한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쇠창살의 칸막이와 대머리 사내와 그리고 음울한 실내 풍경, 그것은 명백히 자신의 기억에 남아 있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 낮익은 공간의 어딘가가 지극히 이물스럽고 수상쩍게 느껴졌다.

“어떻게 오시었소?”

대머리 사내가 권태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뭘, 전당 잡힐 거라도?”

그러자 그는 문득, 자기가 빠져 있는 혼란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를 깨달았다. 그는 황망히 뒤를 돌아보았다. ㉡낮선 문이 하나 거기 닫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문을 열어 보았다. 역시 창고가 아니었다. 어둡고 가파른 층계가 내려다보였을 따름이었다. 그래, 나는 저 계단을 올라왔었지, 하고 그는 생각에 잠겼다. 그것이 언제였던가? 꽤나 먼 기억으로 느껴졌다.

그는 다시 대머리 사내를 보았다. 분명히 자신의 기억에 남아 있으면서도 또 어딘가 낯설어 보이는 그런 얼굴이었다. 쇠창살의 칸막이 사이로 번들거리는 그 대머리는 그의 기억에 남아 있는 무수한 대머리를 한동안 연상시킨 끝에 결국은 짙은 혐오감만을 남겨 놓았다.

- 이동하, 「저당 잡힌 사내」 -

20. 위 작품에 드러난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그’의 심리 변화를 상세하게 묘사하여 독자가 인물의 감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② ‘그’가 경험하는 감각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작품 전반적으로 암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의 심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으며 서술자와 인물의 경계가 모호하게 서술하고 있다.
- ④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순환적 구조를 통해 현대인의 삶이 무의미하게 반복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⑤ 과거의 장면을 삽입하여 ‘그’와 주변 인물들 간의 갈등이 현재에도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1. ㉠와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의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길 없는 괴로움’은 ㉡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 ② ‘그’는 ㉠에서는 ‘먼지’를 보며, ㉡에서는 ‘석탄 소리’를 들으며 ‘죽어 떨어진 시간의 잔해’를 발견하게 된다.
- ③ ‘그’에게 ㉠와 ㉡ 공간 모두 ‘시간의 흐름을 찾아낼 수’ 없는 ‘시간’이 ‘정지’된 곳이다.
- ④ ‘그’는 ㉠에서는 ‘백열등 불빛’으로 ㉡에서는 ‘희미한 램프’를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다.
- ⑤ ‘그’는 과거에는 ‘오소리 굴같이 낮고 좁고 또 가파른’ ㉠에서, 현재는 ‘백열등 불빛으로 충만’한 ㉡에서 ‘윤패감’을 느끼고 있다.

22. 윗글의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는 ㉢에서 닫혔던 문이 열린 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으며 ㉣에서 스스로 자신을 가두고 있다.
- ② ‘그’는 ㉢과 ㉣을 통해 자신이 처한 과거의 삶을 떠올리고 있으며 현재에도 반복되는 무의미한 일상에 권태를 느끼고 있다.
- ③ ㉢에서 대머리 사내에 대한 ‘그’의 오해가 해소되고 있으나 ㉣을 통해 ‘그’와 대머리 사내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 ④ ‘그’는 ㉢에서 일종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을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자각하게 된다.
- ⑤ ‘그’는 ㉢을 통해 자신이 밀폐된 창고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 기뻐하고 있으며 ㉣에서는 다시 갇히게 된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23.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저당 잡힌 사내」는 현실과 기억, 공간에 대한 인식의 혼란을 중심으로 주인공의 내면을 탐구한다. 주인공은 제한된 공간 속에서 시간을 측정할 수 없고,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상태에서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그가 물리적으로 갇힌 좁고 제한된 공간은 고독과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부각시킨다.

‘문’은 입구이자 출구로, 현실과 상상,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그의 혼란스러운 의식을 표현한다. 이는 반복적인 노동 속에서 점차 자신의 존재가 노동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끝없이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삶을 저당 잡힌 현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 ① ‘벽은, 그러나 단호한 힘으로 그를 밀어냈다.’에서 ‘그’는 공간에 대한 인식의 혼란으로 인해 좌절하고 있다.
- ② ‘그’는 ‘백열등 불빛으로 충만해 있는 그 조그만 공간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느끼고 있다.
- ③ ‘이래 가지고는 저 대머리 주인이 일당 천 원을 아까워하리라.’를 통해 반복적인 노동 속에서 점차 자신의 존재가 노동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사물들 사이에 주어진 질서가 그를 조금은 즐겁게 했다’에서 ‘그’는 노동을 수단으로 지난 20년 동안의 삶을 의미있게 일궈왔음에 만족하고 있다.
- ⑤ ‘그’가 ‘외계와는 철저히 단절된’ 공간을 ‘낮익고 분명한 생활 공간’이라 인식하며 노동을 이어가는 모습을 통해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삶을 저당 잡힌 현대인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다.

- 1) ④ ‘그’가 자신은 앞으로도 외로울 것이라고 짐작했다는 내용이 서술된 것이지, 서술자가 ‘그’의 현재 심리와 ‘그’가 앞으로 처할 상황을 추측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인물이 마주한 벽을 주제로 서술하여 벽의 ‘단호한 힘’을 부각하고 있다. ② 인용 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의 생각을 ‘그’ 자신의 목소리로 드러내고 있다. ③ 초점화된 인물인 ‘그’의 관점에서 주인이 일당을 아까워할 것이라는 반응을 예측하여 제시하고 있다. ⑤ ‘그는 생각에 잠겼다’에 ‘그래, 나는 저 계단을 올라왔었지’가 포함되면서, 인물과 서술자의 목소리가 모두 드러나고 있다.
- 2) ② ‘그’가 지상에서 새벽과 저녁을 굳이 헤아리지 않았던 것은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시간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지, 노동의 양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그’는 창고 안에서 시간의 흐름을 찾을 수 없어 괴로웠으며, 이는 과거 갭 속에서의 생활을 떠올리는 것으로 이어진다. ③ ‘그’가 조그만 창고에서 가중된 유패감을 느끼는 것은, 과거에 오소리 굴같이 낮고 좁았던 갭 속에서 생활했던 것에 대응된다. ④ ‘그’가 창고 안 먼지와 갭 속 석탄을 모두 죽은 시간의 잔해로 인식한 것은, 창고 안과 갭 속 모두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없었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⑤ ‘그’가 갭 속을 나와 하늘을 보고 장기 근속자의 폐처럼 음산하다고 인식한 것은, 석탄을 캐던 갭속이 암흑으로 가득했던 것에 기인한다.
- 3) ⑤ ⑥는 ‘그’에게 주어진 창고 정리 일이 어느 정도 충족된 결과로 나타난 반응이고, ⑩는 사라졌던 문이 다시 나타난 예상 못 한 사건에 대해 나타난 반응이다.
[오답풀이] ① ‘그’가 의구심을 해소하는 과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그’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문이 다시 나타난 것으로 ‘그’의 좌절감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④ ‘그’와 전당포 주인 간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 4) ① ‘발작적인 충동’은 일에 대한 지겨움과 무의미성에 대항하는 심리이다. ‘그’가 ‘발작적인 충동’을 참아 내고 있었다는 것은 일에 대한 지겨움과 무의미성에 순응하며 살아왔음을 의미하므로, ‘발작적인 충동’을 폐쇄적 굴레에 순응하려는 현대인의 정체성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② ‘그’가 자신의 생애를 살피며 이를 ‘무의미한 노동의 시간들’로 규정한 것은, 자신의 삶을 끝없는 노동의 굴레에 저당 잡혀온 채 살아왔음을 자각한 것이다. ③ ‘그’가 자신의 노동만이 이루어지는 단절된 창고 안을 낮익고 분명한 생활 공간으로 인식하며 적응하는 것은, 점차 노동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④ 창고 밖으로 향하는 출구인 동시에 외부에서 다시 전당포로 들어오는 입구가 되는 문의 양면성은, 문을 열고 나온 ‘그’에게 ‘야릇한 전도감’을 의식하게 하는 속성이다. ⑤ ‘그’가 전당포 내부와 대머리 주인에 대해 낮설고 낮익음을 동시에 느끼며 기억을 떠올려 보는 것은, 반복된 서사 구조에 의해 구현된 비현실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 5) ④ 이 말을 통해 ‘그’가 ‘대머리 주인’을 원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가 충분히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며 현실적인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 [오답풀이] ① ‘문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홀연히 사라진 것인가’라는 의문형 문장을 통해 문이 사라진 상황에 대한 그의 혼란스러운 내면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② ‘벽은, 그러나 단호한 힘으로 그를 밀어냈다’에서는 인물이 마주한 벽을 주제로 서술하여 벽의 ‘단호한 힘’을 부각함으로써 갭한 상황의 답답함과 절망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③ ‘그것은 무위하게 죽어 떨어진 시간의 잔해 같은 것이었다.’에서는 ‘-같은’을 활용한 직유를 통해 시간의 추상성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⑤ ‘그래, 나는 저 계단을 올라왔었지, 하고 그는 생각에 잠겼다.’에서는 서술자의 서술에 인물의 목소리가 포함되면서 인물과 서술자의 목소리가 모두 드러나고 있다.
- 6) ⑤ ‘그’는 ‘지상으로 올라오면 하늘은 장기 근속자의 폐처럼 그렇게 음산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그가 실제 하늘을 보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길 없는 괴로움이라는 고통 때문에 유패감이 한층 더 가중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② ‘그’가 새벽과 저녁, 출퇴근의 의미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삶이 철저히 노동에 종속되어 시간의 구분이 무의미해졌음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개인의 주제적인 시간과 삶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③ ‘흡사 오소리 굴같이 낮고 좁고 또 가파른 승갱’은 그가 창고라는 조그만 공간에서 느낀 유패감과 유사한 느낌을 준다고 볼 수 있다. ④ ‘그’가 ‘시간의 흐름을 재룰 수 있는 것이라곤 오직 자신의 노동의 양밖에 없었다’고 표현한 것은, 시간의 흐름을 노동의 양으로만 인식하는 노동에 매몰된 삶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7) ⑤ ⑥는 ‘그’에게 주어진 창고 정리 일이 어느 정도 충족된 결과로 나타난 반응이고, ⑩는 사라졌던 문이 다시 나타난 예상 못 한 사건에 대해 나타난 반응이다. [오답풀이] ① ⑥와 ⑩는 벽에 대한 좌절감과 절망감을 드러내는 반응이 아니다. ② ⑥와 ⑩는 인물의 신체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③ ⑥는 인물이 일을 처리한 결과에 대한 기쁨을 나타낸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성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⑩는 인물의 실패에 대한 좌절을 나타내는 반응이 아니다.
- ④ ⑥와 ⑩는 인물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는 반응이 아니다.
- 8) ⑤ 그가 ‘기억에 남아 있는 무수한 대머리’를 연상하는 것은 반복적인 서사 구조에 의해 구현되는 비현실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가 순환을 깨뜨리고 굴레에서 벗어날 것임을 암시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그’가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의 것이었던가조차도 실로 의심스럽다고 한 것은 기억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반복되는 노동 속에서 자아가 희미해지는 현대인의 모습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그’가 ‘그곳에서도 시간은 정지되어 있었다’고 한 것은, 그곳이 현재 창고에서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없는 오직 노동만이 존재하는 공간이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③ ‘그’가 ‘시간의 흐름, 그거야 아무려면 어떠랴 싶었다’고 한 것은 그의 삶이 반복적이고 의미 없는 노동으로 점철되어 와 시간의 흐름에 대해 무감각해졌음을 보여 준다. ④ ‘문’은 창고 밖으로 향하는 출구인 동시에 다시 전당포의 입구가 되는 양면성을 가진 소재로, ‘그’가 반복되는 노동의 굴레에 갇혀 있음을 보여 준다.
- 9) ③ 윗글은 전당포에 온 ‘그’의 시각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사라진 문으로 인한 혼란, 과거 갭 속에서의 기억, 현재 창고에서의 적응 등 모든 내용이 ‘그’의 생각과 인식을 통해 제시된다. 따라서 특정 인물의 시각으로 제한하여 그의 내면 심리를 집중적으로 드러내는

- 것이 가장 적절한 서술상 특징이다.[오답풀이] ① 작품 내의 또 다른 인물의 시각이 아닌 '그'의 시각에서 서술된다. ② 과거 회상 장면이 있지만 이를 통해 인물의 성장을 입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지 않다. ④ 대화보다는 '그'의 내면 독백과 생각이 주를 이룬다. ⑤ 순차적으로 사건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사건을 암시하고 있지 않다.
- 10) ④ 윗글의 '그'는 창고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며, 과거 갱 속에서의 노동 역시 마찬가지로 잊음을 떠올린다. 이는 반복되는 노동에 매몰되어 주체적인 시간 감각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보기>의 화자 또한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저물어가는 강을 보며 자신의 삶이 삽자루에 맡겨진 채 흘러왔음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먹을 것 없는 마을로 돌아가야 하는 반복적인 삶을 예감한다. 따라서 두 작품의 인물 모두 반복적인 노동 속에서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공통점을 지닌다. [오답풀이] ① 윗글의 '그'가 과거를 회상하기는 하지만, 이는 주체적인 시간 인식을 위한 시도라고 볼 수는 없다. <보기>의 화자는 삶의 유한함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고된 노동과 슬픔 속에서 저물어가는 자신의 삶을 묘사한다. ② 윗글의 '그'는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없어 무력감을 느끼고 있지만, <보기>의 화자가 스스로 깊어 가는 강물을 보며 시간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강물의 깊어짐은 화자의 슬픔을 심화시키는 배경으로 해석될 수 있다. ③ 윗글의 '그'는 현재와 과거를 오가지만, 이는 시간의 연속성을 뚜렷하게 인식하기보다는 반복되는 억압적인 상황을 암시한다. <보기>의 화자는 노동으로 인해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을 인식하여 늑약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기보다는, 반복되는 고된 노동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인식하고 슬픔에 잠겨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⑤ 윗글의 '그'는 갇힌 공간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세계를 꿈꾸기보다는 현재의 비현실적인 상황에 혼란스러워하며, 결국 다시 처음과 같은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순환 구조를 보인다. <보기>의 화자는 고된 노동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기보다는 어두운 현실로 돌아가야 하는 절망감을 드러낸다.
- 11) ② '그'는 창고 안과 갱 속 모두에서 시간의 흐름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먼지와 석탄은 그러한 공간 속에서 아무 의미 없이 쌓여 있는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죽은 시간의 잔해'로 여겨진 것이다.[오답풀이] ① 단순히 과거의 흔적이라는 점보다는 시간의 무의미성이 강조된다. ③ 이미 죽은 이들을 상징하고 있지 않다. ④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딛고 나아가야 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그'가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 12) ④ '육신의 매듭마다 뼈끼리는 소리를 냈다'는 표현은 오랫동안 노동에 지쳐 몸이 굳어지고 불편한 '그'의 상태를 나타낸다. 활기차고 건강한 육체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① 음산한 하늘을 통해 '그'의 암울한 내면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② 열악한 갱 속 환경을 묘사하여 유폐감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무의미하게 소멸될 미래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심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13) ② '그'는 문을 통해 다시 처음 전당포에 왔던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며 자신이 벗어날 수 없는 순환적인 굴레에 갇혀 있음을 깨닫는다. 대머리 주인은 이러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존재이므로 그에게 짊은 혐오감을 느끼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착취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③ 두려움보다는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무력감 때문이다. ④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보다는 현재의 반복되는 상황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⑤ 권태로운 태도에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절망감이다.
- 14) ③ '자기 생애의 일부를 저당 잡힌 대가로'라는 구절은 '그'가 자신의 삶을 노동에 종속시킨 채 살아왔음을 명확하게 드러내며, 작품 전체의 주제인 노동에 저당 잡힌 현대인의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오답풀이] ① 상황의 발단에 대한 의문이다. ② '그'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보여 주는 구절이다. ④ 시간의 무의미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구절이다. ⑤ 억압적인 현실에 적응해버린 '그'의 모습을 보여 주는 구절이다.
- 15) ② 윗글의 '그'는 반복되는 무의미한 노동 속에서 벗어나려는 의지 없이 체념하고 현재 상황에 적응하려 한다. 반면 <보기>의 화자는 고된 노동으로 지친 현실 속에서도 비참한 노동 현실을 바꾸려는 개혁의 의지, 노동 해방이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의 의지를 보인다. [오답풀이] ① 두 작품 모두 노동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루며,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내용은 아니다. ③ 두 작품 모두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내용은 아니다. 특히 윗글은 순환적인 구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④ 윗글의 '그'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며 현재의 상황과 유사함을 인식하고, <보기>의 화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희망을 이야기한다. ⑤ 두 작품 모두 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을 간과하지 않으며, 정신적 풍요로움보다는 현실의 어려움을 더 강조한다.
- 16) ② 윗글에서 '그'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 상황에 적응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오히려 체념하고 순응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난다.[오답풀이] ① 비현실적인 설정은 이야기의 몰입도를 높이는 요소이다. ② 반복되는 상황은 노동에 종속된 현대인의 삶을 연상시킨다. ③ 억압적인 공간에 적응한 '그'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⑤ 노동에 매몰되어 시간 감각을 잃은 모습은 씁쓸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 17) ③ 입구이자 출구인 문은 '그'가 반복되는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 주는 장치이다. [오답풀이] ① 희망을 주는 듯하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② 고립감을 심화시키는 요소는 오히려 사라진 문과 닫힌 창고이다. ④ 시간 이동의 통로라기보다는 순환적인 구조를 보여 주는 장치이다. ⑤ 권력관계를 직접적으로 상징하기보다는 반복되는 상황 자체를 상징한다.
- 18) ③ 윗글은 사라진 문으로 인해 혼란을 느끼고, 과거의 고된 노동을 떠올리며 현재의 갇힌 상황에 체념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절망감을 강하게 드러낸다. [오답풀이] ① 활기찬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②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느끼는 평화로운 감정과는 거리가 멀다. ④ 과거 회상 장면은 있지만, 행복했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현재의 암울함을 강조한다. ⑤ 희망과 긍정적인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 19) ④ '그'는 창고 안에서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고, 과거 갱 속에서의 경험 또한 노동의 반복이었다고 생각한다. 문이 다시 나타나 밖으로 나가도 결국 처음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 그의 현실은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반복적인 노동만이 존재하는 억압적인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희망적인 요소는 찾아보기 어렵다. ② 예측 불가능한 사건은 발생하지만, 역동적인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과거 경험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타인과의 소통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고립된 공간으로 인식한다.
- 20) ⑤ '그'가 '갱 속에서' 일하던 과거의 삶을 회상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그'와 주변 인물들 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지 않다. 윗글에는 인물 간의 뚜렷한 갈등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① 위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그'의 심리 변화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인용 부호 없이 인물의 생각을 인물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내기도 한다. ② '백열등 불빛으로 충만해 있는 그 조그만 공간 속에서는 어디에도 시간의 흐름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이제 그것들 사이에 갇힌 한 사내의 생애도 먼지처럼 건조하게 부스러져 쌓일 것이라 믿어졌다.'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그래, 나는 저 계단을 올라왔었지'를 통해 서술자의 목소리에서 인물의 목소리가 함께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탄광과 전당포 창고에서의 삶이 유사하게 반복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닫힌 공간에서 시간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노동을 이어가는 '그'의 삶을 통해 현대인의 삶이 무의미하게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1) ④ 창고에서의 '백열등 불빛'과 탄광에서의 '희미한 램프'는 작품 전반적으로 암울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그'가 이를 통해 삶의 희

망을 느끼는 장면은 윗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이제 그것들 사이에 갇힌 한 사내의 생애도 먼지처럼 건조하게 부스러져 쌓일 것이라 믿어졌다. 그러자 문득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다. 정말 자신의 것이었던가조차도 실로 의심스러운 그 기억이.’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온갖 잡동사니들 위에 쌓여 있는 먼지를 그는 보았다. 그것은 무위하게 죽어 떨어진 시간의 잔해 같은 것이었다.’, ‘강판 위로 우수수 떨어져 내리는 석탄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지층에 켜켜이 쌓여 있던 그 죽은 시간의 잔해들을 캐냈던 것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그 조그만 공간 속에서는 어디에도 시간의 흐름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곳에서도 시간은 정지되어 있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그’는 과거 탄광과 현재의 창고에서 ‘유패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2) ④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조심스레 한 발짝 밖으로 내디뎠다. 형언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가슴을 팔랑개비처럼 휘저었다.’를 통해 ‘그’는 ㉠에서 두려움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문을 열어 보았다. 역시 창고가 아니었다. 어둡고 가파른 층계가 내려다보였을 따름이었다. 그래, 나는 저 계단을 올라왔었지. 하고 그는 생각에 잠겼다.’를 통해 ‘그’는 ㉡에서 자신이 올라온 층계를 바라보며 자신이 창고 문을 열고 나온 것이 아님을 자각하게 된다. [오답풀이] ① ‘그’는 ㉠에서 닫혔던 문이 열린 것을 보며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바깥 환경에 대해 불안함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에서 스스로 자신을 가두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그’가 창고에 갇혀 자신의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장면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과 ㉣을 통해 자신이 처한 과거의 삶을 떠올리고 있지는 않다. ③ 윗글에서 ‘그’와 대머리 사내와의 갈등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⑤ ‘그’는 ㉠에서 기쁨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에서 다시 갇히게 된 현실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3) ④ ‘10년 혹은 20년 이쪽저쪽을 접어 보아도 그다지 다를 것 없는 자신의 생애였다. 어차피 무의미한 노동의 시간들이었다.’를 통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서 ‘문’은 입구이자 출구로, 현실과 상상,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그의 혼란스러운 의식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벽은, 그러나 단호한 힘으로 그를 밀어냈다.’에서 ‘그’는 자신이 창고에 갇혀 문은 사라지고, 벽이 자신을 밀어낸다고 느끼고 있다. 이는 ‘그’의 공간에 대한 인식의 혼란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그 조그만 공간 속에서는 어디에도 시간의 흐름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보기>에서 위 작품은 반복적인 노동 속에서 점차 자신의 존재가 노동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현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이래 가지고는 저 대머리 주인이 일당 천 원을 아까워하리라.’에는 점차 자신의 존재를 노동의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노동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⑤ <보기>에서 위 작품은 끝없이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삶을 저당 잡힌 현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그’가 ‘외계와는 철저히 단절된’ 공간을 ‘낮익고 분명한 생활 공간’이라 인식하며 노동을 이어가는 모습은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삶을 저당 잡힌 현대인의 정체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